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20(목)

서울~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거나 일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노컷뉴스, 7.20) >

◈ 양평 '김건희 라인',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
- 동해·경동 업체, 원희룡 취임날 강상면 종점 착수보고
- 정부-업체, '김건희 라인' 관련해 16차례 긴급회의 열어

□ 서울~양평 고속도로 사업 **타당성 조사 용역** 관련 회의(착수 보고회의 등)에 **국토교통부장관**이 **참석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.**

○ 서울~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2년 3월 29일 착수한 이후, 같은 해 5월 16일 전문 용역사가 도로공사 실무진에게 보고를 하였고, **동일한 내용**으로 **5월 24일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**(서기관)가 주재하는 **착수 보고회의**를 진행하였습니다.

○ **착수 보고회의**에서 '상수도보호구역, 철새도래지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들목(IC) 추가설치 검토' 등 **대안 노선의 검토 방향** 등을 전문 **용역사**가 개략적으로 **제시**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서울~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**1달에 1~2회** 회의*를 진행하였으며, 이는 **통상적인 수준의 회의 실적**이므로 **'긴급회의'라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**

* 대안 노선 및 지역 민원 검토, 일정관리 등을 위해 과장 또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진행

○ 최근에 진행된 **제천~영월** 고속도로(13개월간 15회 이상), **계양~강화** 고속도로(17개월간 21회 이상) 등을 보더라도 **통상적인 수준**입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